

남원 죽항동, 대나무골 소식지 배부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2025년 7월호 '대나무골 소식지' 2,000부를 제작해 지난 11일 동 전 세대에 배부했다. 이번 소식지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개관, 남원국제드론제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폭염대비 경로당 연장운영 등 시정 홍보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문화누리카드 이용 등의 보조사업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대나무골 소식지는 죽항동의 다양한 소식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로 자체 제작해 매월 1회 배부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임점숙 동장은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음 호에는 더욱 알차고 소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철호 재경무주군민회 회장 장학금 450만원 기탁

무주 적상중학교 1회 졸업생인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이 14일 적상중학교(교장 정순도)에 장학금 450만 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재학생 1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전달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호 회장은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장학금에는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심정, 모교가 학생들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장학금 기탁 후에는 적상면 이장단을 찾아 고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전한다며 회원들 25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금동, 사랑의 콩국수 나눔행사 진행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14일, 동 발전협의회(회장 최재우)가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콩국수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에 맞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공동체 내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기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최인술)가 준비한 면과 지역업체(노고단 식품, 대표 강상길)에서 기부한 콩물을 활용했다. 행사에는 각 직능단체와 행정복지센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비한 콩국수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웠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를 나누며 정이 가득한 식사 자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국제사이버대와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홍승정)는 14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홍승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개발 협력, △양측의 전문성에 기반한 위탁 교육과 콘텐츠 개발에 관한 협력, △양측 간 교류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력 등을 갖기로 했다. 특히, 국제사이버대학의 한국어교육전공 교육 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접목해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태권도를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자치도, 도내 북한이탈주민 160여명 참여... 유공자 표창·정착 토론 등 다채롭게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응원하는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14일 전주시 완산구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하나센터와 전주YMCA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북한이탈주민 80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사회적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전주YMCA 100주년과 전북하나센터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전주시장 등 각 기관장의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지역 인사들의 축사와 북한이탈주민의 축하공연, 기념촬영도 진행됐다. 2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북지역 정착 방안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사회적 대화가 펼쳐졌다. 북한이탈주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협의회의 회 및 시군협의회,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민회,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해 정착 지원을 넘어 통일 공감대 형성까지 이어지는 민간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한편 도내에는 총 5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은 421명(80%), 남성은 106명(20%)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78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119명, 익산시 68명, 정읍시 39명, 남원시 38명, 완주군 32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창석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용기와 자립 의지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도는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기념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 5월 정부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만호 기자

농협 전주시지부, 동신초 어린이 식습관 교육·스쿨팜 식체험

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최근 건강한 몸, 밝은 마음, 넓은 생각으로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동신초등학교(교장 강지영)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침밥 먹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밥과 삶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이어, 하양진 지부장, 강지영 교장과 학생들은 함께 지난 4월 텃밭 상자에 아이들이 순수 심고 길러온 상추를 이용해 건강한 로컬버거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하양진 지부장은 "학생들이 정성껏 기른 상추를 이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농작물의



특성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가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폭염대비 농가 현장점검 실시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14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관내지역 농가의 온열질환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가 예찰활동 및 현장점검을 전개했다. 이번 예찰활동은 고창군 관내 시설하우스 및 밭작물 중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온도상승에 따른 피해 위험 수준을 점검하였다. 또한 환기상태, 그늘막설치 여부, 냉방설비 가동 상황 등을 확인하며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찾아와 농가의 피해 우려가 높다"며 "지역농협과 함께 농가의 안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한여름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 고창군지부와 고창군 6개 지역농협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중이며, 농업인



고창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운영

고창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구시포·동호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본격 배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61명(1일 9명)이 교대로 투입돼 수변 안전순찰,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등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구조대 투입에 앞서 7월 4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구조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서는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 후 수영 금지, 어린이 단독 물놀이 금지 등 '물놀이 3대 안전수칙' 홍보도 집중 추진 중이다. 구시포 해수욕장에는 119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인명 구조부터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 /고창=김영식 기자



과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냉방공간 마련 및 생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소방서, 하반기 전입 직원 실무적응훈련 실시

순창소방서는 7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응훈련을 실시하며, 하반기 지역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실무적응훈련은 새로 전입한 직원들이 순창소방서의 조직 문화와 지역 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은 순창소방서의 주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실습 △폭염 및 풍수에 대비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도 포함됐다. 순창소방서 전입 직원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위주의 실습 중심 훈련을 통해 순창의 재난환경을 이해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기안전공사 신입직원 134명 교육 수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1일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신입직원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주 동안 집중 교육과정에 참여한 신입직원 134명(경영관리직 29명, 기술직 100명, 연구직 5명)은 수료식 이후 12일부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각 부서로 배치됐다. 이날 수료식은 공사 창립 51주년 이래 최초 가족 동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직원이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순간을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본사 CEO와의 기념촬영 등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폭염에도 먼 길을 달려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신입직원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왕정동, 드림밥상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왕정동은 지난 10일, 관내 드림밥상(대표 박인수)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동 관계자에 의하면 드림밥상은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함께 진행하는 나눔 실천 프로그램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매월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김종주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어린이 체험형 경제교육 '호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경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경제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육효진 작가를 초청해 진행, 어린이들이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투자에 대한 개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육효진 작가는 현직 교사이자 베스트 셀러 '세금내는 아이들의 저자'로 '개념사전 시리즈(경제, 법과 정치, 지리, 과학' 등을 포함한 어린이용 경제·사회·교양서 등 경제 분야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24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소득, 이자, 투자 등 어려운 것만 같았던 경제용어를 다양한 사례와 재미있는 퀴즈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릿속에 속속 들어와서 좋았으며 가까이서 작가님을 직접 만나 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야 할 필수 생활 교육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봉센터, 한마음가족봉사단 밑받침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한마음가족봉사단이 지난 12일 밑받침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마음가족봉사단 20여명의 회원들이 장조림, 동그랑땡 등을 정성껏 만들고 김제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센터 대상 아동이 시는 20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반찬 전달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며 아동들의 안부를 살피고, 인사를 나누는 등 이웃 돌봄 나눔을 실천했다. 한마음 가족봉사단 최지영 회장은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반찬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가족봉사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